

# KOPLAS · K-Mtech 2021 보도자료

제26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 (KOPLAS 2021)

26th Korea International Plastics · Rubber Show

한국 소재 및 복합재료 전시회 (K-Mtech 2021)

Korea Materials & Composite Show

8월 25일(수)부터 8월 28일(토)까지 고양 KINTEX 제2전시장에서

‘플라스틱,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 주제로 열려..... !!

제26회 국제 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KOPLAS)와

한국 소재 및 복합재료 전시회(K-Mtech)가

K-PRINT 2021(인쇄, 레이블, 디지털 프린팅, 패키징, 텍스타일) 전시회와 동시개최!!

친환경 소재부터 첨단 복합재료, 초정밀 가공기기까지 국내외 우수한 플라스틱·고무산업 최신 기자재가 한 자리에 선보인다. (주)한국이앤엑스와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은 국내플라스틱·고무산업의 발전과 국제교역 진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아, 오는 2021년 8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4일간 고양시 KINTEX 제2전시장에서 제26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 KOPLAS 2021(26th Korea International Plastics & Rubber Show)와 한국소재 및 복합재료전시회 K-Mtech 2021(Korea Materials & Composite Show)를 동시 개최한다.

지난 1981년 첫 회를 시작으로 26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KOPLAS 2021은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소재 및 복합재료 전시회(K-Mtech 2021)와 K-PRINT 2021(인쇄, 레이블, 디지털 프린팅, 패키징, 텍스타일) 전시회(2021년 8월 26일(목)~28일(토))와 함께 총 22,580㎡의 규모로 동시 개최한다. 특히, 최근 소재 및 복합재료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KOPLAS 전시품목 중 소재 및 복합재료 분야를 분리, 확장하여 새롭게 개최되는 한국소재 및 복합재료전(K-Mtech 2021)에서 화학, 금속, 세라믹 소재와 바이오, 융복합 재료도 함께 선보인다. 금번 KOPLAS 2021은 플라스틱 소재뿐만 아니라 금속, 나노, 세라믹 및 복합재료산업 간의 상호 교류 및 플라스틱 연관산업(인쇄, 패키징 등) 전시회의 동시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위한 마케팅의 장을 열어갈 것이며, 참관객에게는 대한민국의 플라스틱·고무 산업과 소재 및 복합재료 산업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온 플라스틱산업은 최근 미래 자동차산업 및 친환경(탄소 중립) 트렌드와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KOPLAS 2021에서는 8월 26일(목) ~ 27일(금), 양일간 미래 자동차산업과 탄소 중립 관련하여 “미래 세계를 위한 최첨단 플라스틱 소재 연구개발 동향”을 주제로 ‘첨단 플라스틱 신소재 연구개발 동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외에 8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3일간 PLA TECH CON.(Plastics Technology

Conference)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플라스틱 고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을 소개하며, 그린플라스틱연합에서 “국내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및 적용 현황” 을 주제로 친환경 소재 및 제품개발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사)한국고무학회에서 “탄소 중립 탄성 소재 신기술 동향” 을 주제로 ‘제1회 탄성 소재 신기술 심포지엄’ 을 8월 26일(목)에 진행하여 고무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참가가 예상된다. KOPLAS 2021 전시회와 병행되어 진행되는 학술행사는 동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는데 필요한 전략 정보를 제시하는 지식 나눔의 장이 될 것이다.

■ ‘코로나19’ 에 대응하는 철저한 방역시스템으로 청정 전시회 운영!

코로나19(COVID-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시장에 최적화된 K-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고 국내외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우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철저한 방역을 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여 청정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장 입·출입구를 제한하고 철저한 단계별 방역절차를 통해 전시회를 운영한다. 참관객은 출입확인 등록 절차를 거쳐 열화상 카메라, 안면인식 발열 감지기에 37.5도 이상 고열이 감지되면 비접촉 체온계로 2차 측정 한 뒤 입장 여부를 판단한다. 입장 시에도 손 소독제를 이용하고 반드시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전시장 내에는 안전한 관람 안내와 방역용품 착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 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장 내 방역시스템을 통해 참관객의 동선이탈을 방지하고 참관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간격을 유지하여 감염경로를 사전에 방지하며, 전시장 공조시설을 매시간 가동하여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 산업간 융합의 시대에 첨단장비를 한눈에!

반도체, 자동차부품, 핸드폰, 컴퓨터, 의료기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의 플라스틱과 고무 이용도가 매우 증가하여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가공 기계들의 무인자동화와 초정밀, 초고속 및 초대형 성형기계 등 기술 집약된 가공기기들의 참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제품가공에 따른 자동화 설비 그리고 관련 부품은 물론 시험 측정기기 및 관련 서비스들도 전시된다.

KOPLAS 및 K-Mtech 2021의 개최를 계기로 플라스틱 산업계는 선진 플라스틱 산업의 기술 개발 동향과 악과 양적 팽창에 버금가는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세계 각국의 제품과의 상호비교를 통한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시키고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수출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전시회 참가업체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하여 KOPLAS 2021 홈페이지(www.koplas.com)를 통해 전시회 개요, 세미나 일정, 부스 배치도, 출품사 및 전시품의 정보와 사진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여 연중 서비스하며, 각 출품사의 홈페이지와도 연결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개장하여 오후 5시까지 전시한다. 상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KOPLAS 2021 사무국(T.02-551-0102)에 문의나 홈페이지(www.koplas.com)를 이용하면 된다.